

등록일 2011.12.19

스크랩:1 조회:4298 추천:8

지구, 달을 삼키다

11년 만의 개기월식. 관측회 현장에선 무슨일이 ?



지난 10일(토) 오후 9시, 국립과천과학관에 1500명의 인파가 한자리에 모였다. 과학관에서 경품이 크게 걸린 행사를 진행한 것도, 유명 연예인이 나타난 것도 아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 오후 11시에 예정된 개기월식을 관측하는 것.

국립과천과학관과 경희대학교 천문학과는 '지구, 달을 삼키다'라는 제목의 관측행사를 공동개최했다. 경희대학교 천문학과 학생들은 총 6대의 망원경을 과학관 앞 광장에 설치했고, 개기월식이 일어나기 2시간 전에는 과학관 창조홀에서 경희대학교 천문대 박수중 대장의 천문학 강연이 진행됐다. 27명의 천문학과 학생들은 행사운영요원으로 참가해 추운 손을 녹여가며, 일반인들의 달 관측을 도왔다. 원래 계획은 강연이 끝나면, 바로 달 관측을 시작하려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서 강연은 2회로 추가됐다.



강연이 끝난 후 박수종 대장에게 질문하는 아이들.

달은 왜 움직이나요? 언제 생겼나요?

강연장은 가족단위 참가자들로 가득 찼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호응이 두드러졌다. 호기심 가득한 표정의 학생들은 강연이 끝나고 난 후에도 그 동안 궁금했던 천문현상에 대해 질문하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경희대학교 천문대 박수종 대장(우주탐사학과 부교수)은 강연을 마치고 나서 “학생들이 뻔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 놀랐다”고 말하며,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호기심은 천문학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을 마친 후, 관람객들과 행사 운영자들 모두 광장에 모여 월식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쉽게도 '구름 조금'이라는 일기예보와는 달리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하늘에는 온통 구름이 가득해 달이 보이지 않았다. 11시가 다 되도록 구름이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추위에 떨던 사람들은 하늘 돌씩 발길을 돌렸다. 개기월식을 관측하고 나면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에 매료된 관람객을 위해, 별자리와 성단 관측도 준비한 터라 주최측도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그냥 망원경 한번만 보면 안될까요?

마지막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기다린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온 어린 학생들이었다. 커다란 망원경을 처음 보는 학생들은 “달은 안봐도 되니까...망원경 한번 보면 안될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쉬워하는 관람객들을 보다 못해 경희대학교 천문학과 학생들은 목성이라도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구름을 옮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행사장에는 20여명의 관람객만이 남은 상황.



망원경을 보고 싶지만 키가 작아 도움을 받는 참가자.
이날 관측회에는 어린 학생들이 다수 참가했다.

그런데 11시 20분을 넘어서면서 갑자기 하늘이 개기 시작했다.

행사 운영요원들은 철수하던 망원경을 재빨리 조립해 달을 향해 배치했다. 그리고 나서 10분 후 하늘은 완전히 갠다. 달은 붉으스름한 모습을 드러냈고, 관람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달을 관측하기 시작했다. 육안으로 바라보면, 엄지손톱만한 달이지만 망원경을 통해서 크게 보면 그 신비한 느낌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다.



사진촬영 - 국립과천과학관 천체관측소 (500mm 망원경)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관람객들은 개기 월식을 관찰 후, 한껏 부푼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경희대학교 천문대 박수중 대장은 "1년 중 천체관측이 날씨의 방해 받지 않는 날은 50일도 채 되지 않는다. 일반인들이 신비로운 천문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번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한편으로는 "더 많은 기관과 단체가 힘을 모았다면, 하늘에 구름이 낀 동안 소형 천체투영관을 보여주거나 망원경조립법과 관측법을 가르쳐주면서 관람객들이 기다리는 것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Total Lunar Eclipse 2011.12.10 국립과천과학관 천체관측소

글. 사진 김상호

© 한국과학창의재단(www.kofac.re.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 [닫기](#)